

최근 고령층 고용동향 특징과 시사점

이경곤(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 연구의 목적

- ◎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동력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됨
- ◎ 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최근 산업별 고용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인지를 살펴봄

2 장년층 취업현황과 추이

- ◎ 2000년 이후 노동시장의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장년층으로 이동하면서 고용의 중심이 40대 이후 연령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따른 장년 취업자의 증가임
 - 2000년 이후 12년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5,396천 명 증가하였으나, 5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4,333천 명 증가하여 노동시장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장년층 중심의 고용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현상일 수 있음

-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55~64세 취업자는 1,337천 명 증가하였고, 동일 기간에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784천 명 증가하여 고령 취업자는 총 2,121천 명 증가하였음
- 이는 최근 12년간 3,525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5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가 전체 고용증가에서 60.2%를 차지함

- ◎ 2000년 이후 취업자 증가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연령대별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고용률 추이를 <표 1>을 통해 살펴보면,
 -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전체 고용률은 59%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별 고용률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성별 간 고용률 격차는 상당히 커서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 평균적으로 23%p 차이를 보임

<표 1> 장년층의 고용률 변화 추이

(단위 : %)

	15세 이상			55~64세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남성	여성
2000	58.5	70.7	47.0	57.8	68.5	48.0
2001	59.0	71.0	47.7	58.3	69.6	47.8
2002	60.0	72.2	48.4	59.5	72.1	47.6
2003	59.3	71.9	47.4	57.8	70.8	45.4
2004	59.8	72.0	48.3	58.4	71.6	45.9
2005	59.7	71.6	48.4	58.7	72.2	45.7
2006	59.7	71.3	48.8	59.3	72.6	46.4
2007	59.8	71.3	48.9	60.6	74.7	46.9
2008	59.5	70.9	48.7	60.6	74.3	47.4
2009	58.6	70.1	47.7	60.4	74.5	46.7
2010	58.7	70.1	47.8	60.9	75.1	47.1
2011	59.1	70.5	48.1	62.1	76.5	48.1
2012	59.4	70.8	48.4	63.1	77.2	4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55~64세 장년층의 경우, 전체 고용률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 고용률은 5.3%p 증가하였고 특히 2007년 이후에는 60% 수준을 웃돌
- 고용률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완만한 고용률의 증가 추세를 보여 2000년 이후 1.4%p 증가하였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8.7%p 증가하였음

3 산업별 장년층 취업비중의 변화

- ◎ 각 산업에서 연령대별 취업자의 비중을 고려하기 위해, 각 산업의 모든 연령대별 고용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구성하여 2004~2012년간 고용비중의 변화를 <표 2>를 통해 살펴보면,
 - 대부분 산업에서 장년층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55~64세 장년층의 경우에는 제조업(3.1%p), 건설업(6.1%p), 운수업(12.1%p), 숙박 및 음식점업(7.2%p),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6%p), 협회 및 개인서비스업(8.1%p)에서 고용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농림어업에 55~64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0.3%p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8.0%p 증가하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반면 15~29세 청년층의 고용비중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7%p),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9.4%p),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4%p), 교육서비스업(-11.3%p),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0%p)에서 큰 비중감소가 있었음
- ◎ 산업별 장년층의 고용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산업부문에서 고용비중의 증가 양상이 같지 않고, 특정 산업들을 중심으로 고용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농림어업,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협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고령층의 고용증가를 이끄는 업종임

〈표 2〉 산업별 연령대 비중의 변화 : 2004/2012

(단위 : %)

	2004					2012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
농림어업	2	33.2	28	36.8	100	2.2	25.2	27.7	44.8	100
제조업	22.1	69.5	6.9	1.6	100	15.1	72.5	10	2.3	100
전기가스수도	15.5	78.2	3.8	2.4	100	7.4	82.9	7.5	2.1	100
하수폐기물환경	14.2	65.5	16.7	3.6	100	9.3	71.4	13.4	5.9	100
건설업	12.4	74.6	11.5	1.5	100	7.6	72.1	17.6	2.7	100
도소매업	23	63.1	9.1	4.8	100	16.9	63.7	11.9	7.4	100
운수업	9.1	75.8	12.8	2.4	100	7	61.8	24.9	6.3	100
숙박음식점업	18.7	69.8	9.4	2.1	100	21.3	58.7	16.6	3.4	100
출판방송정보	36	61.3	1.9	0.8	100	26.6	70.2	2.5	0.7	100
금융보험업	25.9	69.2	4	0.9	100	17.8	75.4	5.9	0.9	100
부동산임대업	10.3	59	22.1	8.6	100	6.2	57.1	23.6	13.1	100
전문서비스업	34.2	61	3.2	1.6	100	23.8	68.5	6	1.7	100
사업지원서비스업	18.1	47	26	8.8	100	14.6	47.7	24.3	13.4	100
공공행정	11.9	77.3	8.2	2.6	100	7.4	69.8	14.2	8.6	100
교육서비스업	34.8	59.4	5.4	0.4	100	23.5	68.2	7.3	1	100
보건사회복지업	46.2	49.2	3.7	1	100	27.2	59.3	9.3	4.3	100
예술스포츠여가	34.1	57.7	6	2.2	100	30.7	58.8	7.9	2.5	100
개인서비스업	18	66	12.1	3.9	100	11.9	62	20.2	5.8	100
가구내 고용활동	1.3	50.2	34.7	13.8	100	0.2	30.8	48.2	20.8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고용변화와 임금변화

1.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고용변화와 임금변화

- ◎ <표 3>은 2004~2012년간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와 장년층의 월 임금수준을 보여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9차 산업표준분류(대분류)를 2004년 이후부터 제공하기 때문에 지난 8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 월 임금은 통계청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임금으로 변환하였음
 - 장년층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8년간 제조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문,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함
 -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농림어업에서 12만 명, 그리고 교육서비스업에서는 8만 7천 명의 고용감소가 있었음
 - 54세 이하 연령대에서 임금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산업은 전문, 기술서비스업으로 44만 9천 원 임금이 인상됨
 - 장년층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기술서비스업에서 임금이 상승하였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임금이 하락하였음

〈표 3〉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와 임금 : 2004~2012년

(단위 : 천 명, 만 원)

	2004/2012		2004년		2012년	
	전체 취업자 변화(천 명)	55~64세 취업자 변화(천 명)	54세 이하 임금의 증가(만 원)	55~64세 임금의 증가(만 원)	54세 이하 임금의 증가(만 원)	55~64세 임금의 증가(만 원)
농림어업	-295.4	-87.5	119.3	59.7	141.1	75.3
제조업	-72.2	122.5	173.0	119.3	188.1	169.3
전기가스수도	3.6	2.9	250.6	298.3	310.4	357.5
하수폐기물환경	23.5	1.6	202.9	161.1	178.7	159.9
건설업	-44.8	103.0	179.0	119.3	188.1	141.1
도소매업	-113.3	92.2	131.3	119.3	150.5	122.3
운수업	244.0	198.6	179.0	143.2	188.1	169.3
숙박음식점업	-150.8	123.7	107.4	95.5	103.5	103.5
출판방송정보	94.4	6.0	214.8	202.9	235.2	297.3
금융보험업	104.1	20.4	238.7	179.0	235.2	188.1
부동산임대업	32.9	14.8	163.5	95.5	169.3	112.9
전문서비스업	421.7	42.7	193.3	119.3	235.2	369.7
사업지원서비스업	430.5	92.3	143.2	95.5	141.1	103.5
공공행정	183.6	71.9	262.5	119.3	254.0	263.4
교육서비스업	199.0	45.0	167.1	417.7	169.3	385.7
보건사회복지업	809.2	108.7	155.1	119.3	141.1	103.5
예술스포츠여가	63.1	11.5	107.4	143.2	136.4	112.9
개인서비스업	164.0	123.9	131.3	107.4	141.1	112.9
가구내 고용활동	41.8	36.9	65.6	59.7	75.3	7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표 3〉은 산업별 특정 연령대의 고용증감을 보여주고 있음

- 특정 연령대의 취업자 증감은 해당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환경과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연령대 이동 또는 인구이동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이런 요인을 제거하는 데 사용됨
- 연령대 이동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연령대로의 신규진입 취업자 규모와 탈퇴하는 취업자의 수를 고려하였음

- 신규진입 규모와 탈퇴 규모의 차이는 연령대 이동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면 노동시장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를 구할 수 있음
- ◎ <표 3>은 연령대 이동효과를 제외한 연간 취업자 변화 추이임
 -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연령대 이동효과를 제거한 후의 취업자 증감을 나타냄
 - 취업자 증감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와 유사할수록 취업자 변화가 노동시장요인에 기인함을 의미함
 -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송업 등은 취업자 이동 중 연령대 이동효과가 큼
 -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노동시장요인이 취업자 증감에 많은 영향을 줌
- ◎ <표 4>는 특정 연령대의 산업별 임금의 중간값을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중간값 또는 평균값은 해당 산업의 특징이나 그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장년층의 임금수준을 54세 이하 근로자와 비교하기 위해 로그임금을 사용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하였음
 - 설명변수로 나이, 나이의 자승, 재직기간, 재직기간의 자승, 교육연수, 성별, 기혼여부, 사업장규모, 노조유무 그리고 도시지역 거주여부를 사용하였음

〈표 4〉 55~64세 취업자 증감요인 분석

(단위 : 천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림어업	-10.6 (23.3)	-32 (-3.8)	-57.9 (-34.8)	-36.8 (-20.8)	-37.9 (-32.9)	-81.9 (-82.1)	-24.7 (-19.7)	-13.7 (5.6)
제조업	-47.4 (-77.8)	-73.2 (-107.4)	-42.4 (-76.8)	-51.6 (-89.3)	-126.2 (-169.5)	191.2 (119.1)	63.2 (2.9)	14.1 (-50.6)
건설업	-4.7 (-27.2)	19.9 (-3.3)	15.9 (-14.5)	-37.3 (-61.8)	-91.5 (-115.6)	32.9 (-11.5)	-2.3 (-45.8)	22.3 (-17.5)
도소매업	-55.7 (-69.7)	-35.6 (-61.5)	-37.9 (-65.8)	-41.5 (-68.1)	-31.5 (-67.1)	-19.7 (-77.3)	57.8 (15.7)	50.8 (21.3)
운수업	29.2 (2.5)	27.8 (4.5)	54.3 (29.6)	0.7 (-29.0)	-0.7 (-30.1)	33 (-7.4)	52.1 (11.1)	47.5 (20.3)
숙박음식점업	0.7 (-23.9)	-8.7 (-32.6)	0 (-26.8)	-5.3 (-26.9)	-107.4 (-138.2)	-47.3 (-92.3)	-35.6 (-73.1)	52.9 (17.9)
출판방송정보	31.9 (31.0)	13.1 (11.9)	-16.9 (-20.6)	-7.1 (-10.2)	25.2 (24.0)	15.7 (11.3)	35.2 (28.7)	-2.8 (-7.0)
금융보험업	7.8 (3.5)	40.3 (37.9)	20.4 (14.1)	15.3 (6.9)	-55.2 (-60.5)	41.6 (31.5)	38 (23.6)	-4.1 (-14.7)
부동산임대업	43.5 (45.4)	3.2 (6.0)	5.7 (9.4)	-16.6 (-21.3)	11.6 (8.4)	16.5 (14.5)	-30.8 (-36.9)	-0.3 (-8.3)
전문서비스업	18.8 (16.3)	55.9 (53.3)	20.8 (14.4)	54.7 (49.2)	87.2 (84.8)	39.6 (29.2)	77.4 (68.4)	67.2 (58.9)
사업지원서비스업	56.1 (54.3)	76.8 (78.8)	134.7 (131.4)	20.2 (12.9)	-29.4 (-31.2)	78.4 (77.7)	63.8 (53.6)	29.9 (19.3)
교육서비스업	58.8 (47.5)	98 (89.8)	38.2 (24.5)	44.1 (29.6)	47.5 (37.7)	-32.6 (-49.2)	-112.8 (-135.2)	57.8 (41.6)
보건사회복지업	49.3 (45.9)	41.6 (37.6)	58.8 (51.7)	102.7 (98.6)	155.5 (147.9)	154.8 (140.9)	158.3 (143.4)	88.1 (73.5)
예술스포츠여가	37.4 (34.0)	-4.5 (-6.8)	-8 (-9.9)	48.1 (46.3)	-28.4 (-29.7)	-10.7 (-17.6)	37.2 (33.4)	-7.9 (-10.8)
개인서비스업	48.7 (36.7)	47.9 (36.7)	72.3 (57.2)	6.1 (-12.2)	-85.8 (-104.1)	4.9 (-11.3)	45.1 (25.4)	24.7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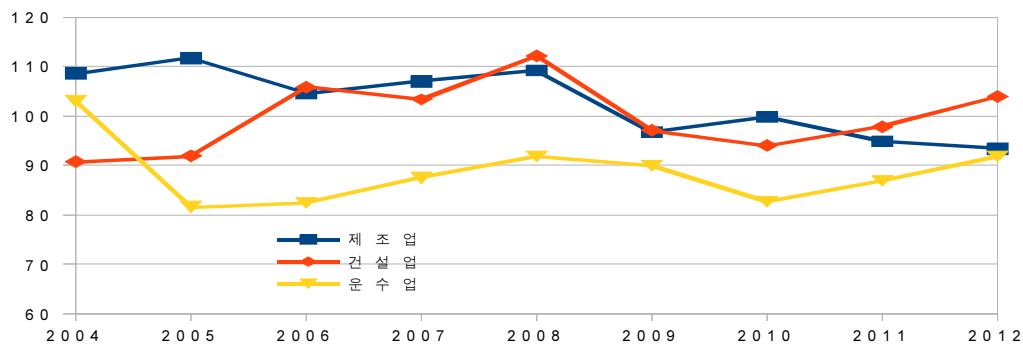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연령대 증감요인을 제거한 노동시장 요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그림 1]과 [그림 2]는 특정 산업에서 54세 이하 대비 장년층의 매년 임금수준을 나타냄
- 그림에서 점이 종축의 100을 넘을 경우 장년층의 임금수준은 54세 이하의 평균임금보다 높게 평가됨

- 각 그림에서 산업별 상대임금은 안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경기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경우도 있음
- 제조업은 2000년 말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지만 2009년 이후 임금수준이 하락하고 있음
-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장년층은 상대적 임금수준이 낮음
-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은 2000년대 말부터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 산업별 30~54세 이하 임금 대비 장년층 임금수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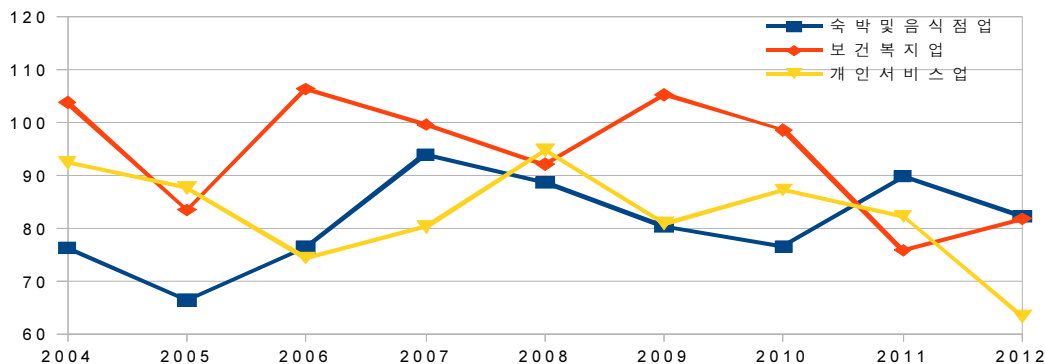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산업별 30~54세 이하 임금 대비 장년층 임금수준(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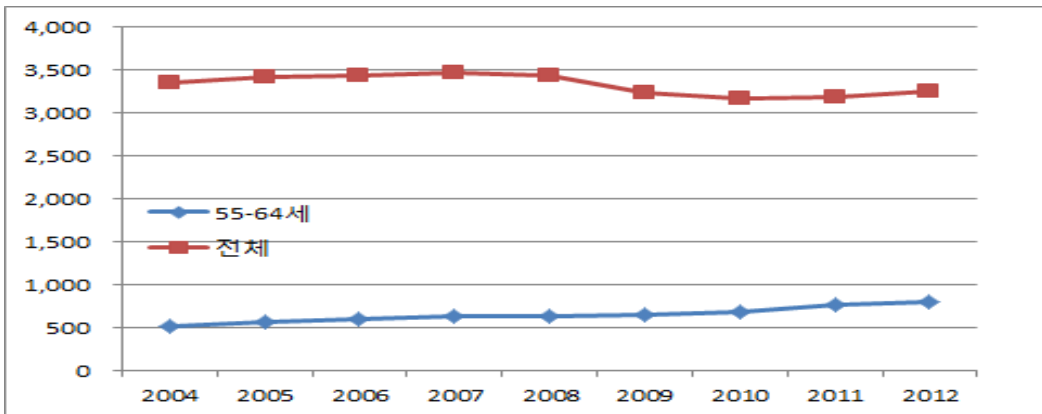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변화

- ◎ [그림 3]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2004년 이후 취업자 중에서 가구 주 기준으로 자영업 종사자 그리고 55~64세 연령대의 농림어업을 제외한 자영업 종사자 추이를 표시함
 - 자영업 종사자의 수는 2000년 중후반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지만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하지만 55~64세 근로자 중에서 자영업자는 2004년 이후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장년층의 자영업 종사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림 3] 자영업자의 수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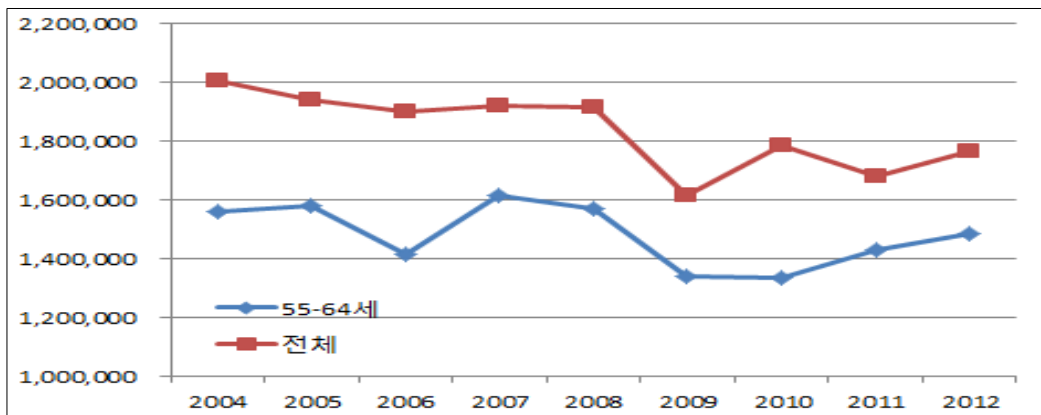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그림 4]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2004년 이후 자영업자의 월사업소득의 추세를 표시함
 - 물가변동을 감안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소득으로 변환하였음
 - 전체 자영업자의 월사업소득은 2000년 중후반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2008년 이후에는 급락하였음

- 55~64세 장년층 자영업의 경우, 월사업소득은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4] 자영업자의 실질 월사업소득 추이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55~64세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와 하락하는 사업소득은 장년층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열악함을 암시하며, 장년층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3. 연령대별 순자산 변화 추이

- ◎ 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은퇴와 같은 노동공급을 결정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사용될 노후자금임
 - <표 5>는 연령대별로 2006~2012년간 가계재정의 변동을 설명함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 와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하였고, 물가변동을 감안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함
 - 2006년 51~56세 그룹은 6년 후에 부채비중은 증가하였지만 다른 가계재무는 별

- 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2006년 57~62세 그룹은 2012년도에 순자산, 자산총액 그리고 경상소득은 감소한 반면, 부채 총액은 6년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이 두 그룹의 가계재무 상태는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5〉 연령대별 가계재무 상태의 변화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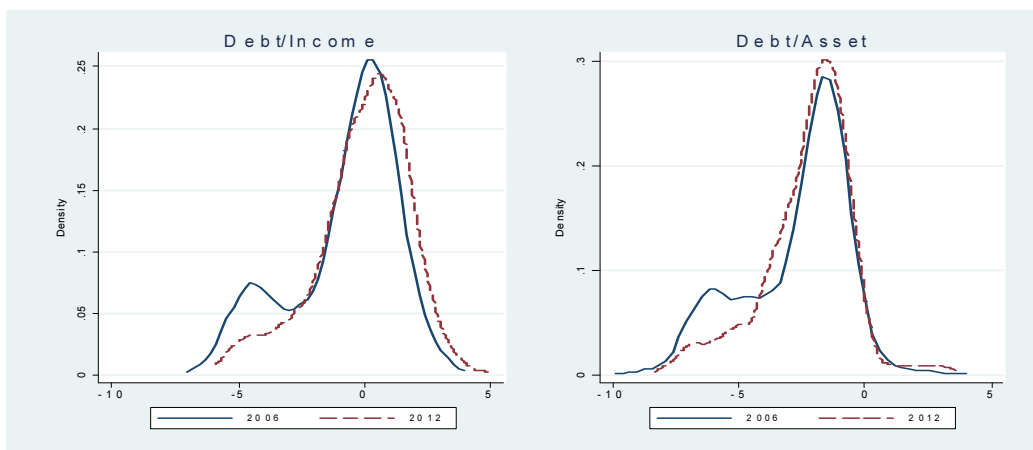
		39~44세	45~50세	51~56세	57~62세	63~68세
2006년	순자산	24,997	28,382	35,204	41,791	38,719
	자산총액	30,190	32,972	40,248	46,799	42,488
	부채총액	5,193	4,590	5,044	5,007	3,768
	경상소득	4,658	4,604	4,560	4,066	3,766
2012년	순자산	23,800	29,480	32,961	35,096	26,373
	자산총액	29,155	36,577	40,383	41,903	31,403
	부채총액	5,355	7,096	7,422	6,807	5,030
	경상소득	5,166	5,540	5,605	4,684	3,082

주 :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2010년 기준 가격으로 변환함.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 ◎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부채/소득 비율과 부채/자산 비율을 살펴봄
 - 부채/자산과 부채/소득은 상당한 왜도를 가지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 정규분포와 유사하게 변환하였음
 - 따라서 양(+)의 값은 부채가 소득이나 자산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음(-)인 경우에는 부채가 적음을 나타냄
 - 커널추정법을 사용하여 가구별 부채/소득과 부채/자산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였음
 - [그림 5]는 1944~1949년 출생그룹, 즉 〈표 5〉에서 2006년 57~62세 그룹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로그 부채/소득 비율과 로그 부채/자산 비율에 대한 확률밀도의 추정결과를 나타냄
 - [그림 6]은 [그림 5]와 유사하게 1950~1955년 출생그룹의 로그 부채/소득과 로그 부채/자산에 대한 확률밀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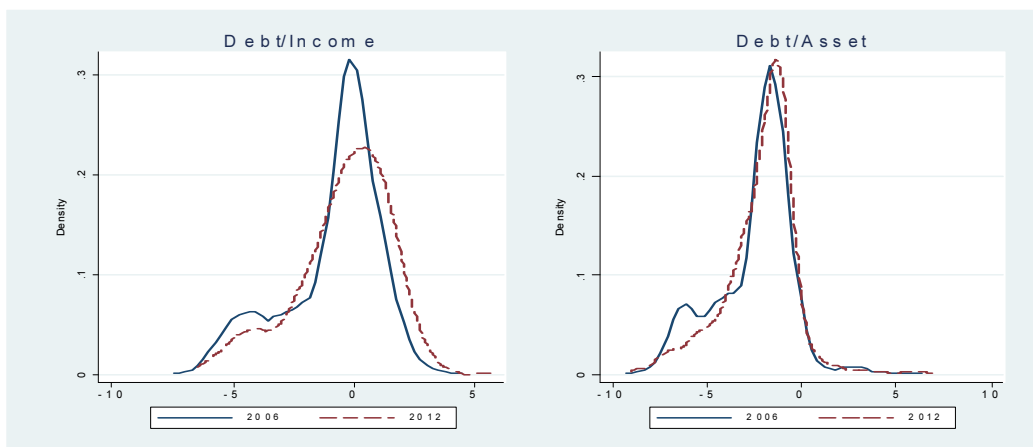
- [그림 5]와 [그림 6]에서 부채·소득 비율은 왼쪽 꼬리 부분이 줄어들면서 분포가 약간 우측으로 이동함을 보임
- 또한 부채·자산 비율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부채·소득보다 움직임이 덜 함
- 따라서 지난 6년간 가계부채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장년층의 노동공급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림 5] 1944~1949년 출생그룹의 부채·소득 및 부채·자산 비중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6] 1950~1955년 출생그룹의 부채·소득 및 부채·자산 비중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5 요약

- ◎ 최근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장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임
 - 인구고령화를 고려하기 위해 고용률을 살펴보면, 최근 장년층의 고용변화가 55~64세 남성 장년층의 주도로 이루어짐
- ◎ 인구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별 구성에서 장년층의 비중이 증가함
 - 특히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장년층의 고용비중이 많이 증가함
- ◎ 장년층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54세 이하 취업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산업에서 장년층의 임금수준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
- ◎ 장년층 취업자들의 가구당 자산 또는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지난 6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년층의 노동시장에서의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